

# 이분법이 아닌 통합의 시각으로

아시아 비엔날레 개최의 의미와 한국 현대미술

글\_ 이원일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 비엔날레의 존립 근거

비엔날레는 기존의 미술관, 화랑 중심의 전시문화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유형의 문화행동이다. 그것은 기존의 컬렉터 중심의 미술 수용 방식이나 미술관 관람객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관객을 위한 수용문화를 창출해 내는 문화 이벤트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이벤트를 통해 동시대 시각문화를 담론화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고 각종 실천적 의식과 이념이라는 슬로건들이 표방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120여 개가 넘는 크고 작은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등의 존립 근거들은 어떻게 규명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한 물음에 대한 유효한 해답은 결국 각 개최지의 특수한 지리적 장소성의 개념에 대한 강조보다는 외부 세계로 확산되는 입체적 네트워킹의 구축을 통해 개방 지향적 담론의 총체적 컨텍스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비엔날레를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문제로 귀착된다.

즉 비엔날레란 네트워킹을 실험하는 가능성들의 집합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네트워킹이란 고정적·획일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문화적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도가 전시를 통해 극단적으로 실험될 때

새로운 미술의 흐름을 예단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사고의 인자들을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다수의 비엔날레들이 전 지구적 차원의 넓은 시야를 확보하되 동시에 행사 주체들의 인간적 네트워킹과 독자적 성격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는가가 전시의 질을 결정짓는다.

물론 현재 팽창과 확산을 거듭하고 있는 세계의 비엔날레의 포화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엔날레 무용론자들의 공통된 견해들은 대략 미술의 표준화 현상에 대한 우려와 미술 정치의 권력화에 대한 경계로 압축된다. 즉 각 비엔날레들에 스타 큐레이터들과 작가들이 끊임없는 자기 증식을 도모하여 자기 복제 세포의 확장 과 계승에 의해 궁극적으로 세계 미술의 표준화라는 부작용을 생산해 내고 중국에는 국제 양식이나 국제주의의 표본을 양산하는 쇼비니즘적 수사의 남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그것이다. 또한 활자 문명에서 영상 중심 문화로 문명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국의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과 관광,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고부가가치의 문화 인프라를 추구하는 새로운 마케팅과 홍보의 전략적 도구로 비엔날레의 창설을 서두르는 현상들도 신생 비엔날레 설립의 배후에 노정된 정치적 목적

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피적 현상에 대한 일차원적 진단을 넘어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미술문화의 활성화라는 대전제를 바라보면서 필자는 비엔날레 무용론보다는 옹호론 쪽의 입장에서 그 의미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다수의 발상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현대미술의 운명 앞에서 그나마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다.

### 아시아 비엔날레의 당면 과제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의 당위성에 앞서 우선 소위 '아시아성' 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논의해 보자.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아시아성'이라는 개념이 글로벌리즘과 후기 식민주의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서 미술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가치가 20세기 인류가 상실한 정신적·윤리적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그것이 다양성을 인식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시각에 '아시아성'의 규명에는 지리적 개념만이 존재할 뿐이다. 서구인에게 납득할 만한 가치로 제시될 수 있는 아시아의 정신적 제언은 슬로건의 차원을 넘어선 역사와 철학, 인문학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덕목과 규준의 동양적 발상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리학, 생태학, 자연관의 총체적 비전에서 심리학 적·조형적 관심으로 이동될 때 비의적 시공간, 명상을 전제로 한 동양적 이미지의 제전으로서 총체적인 메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전시문화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본다. 즉 아시아성, 정체성의 문제에서 지역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호한 형이상학적 관념에의 함몰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들의 사고(보편성)를 밀그림으로 하고 아시아 각국의 지역적 문제를 어떻게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들과 효과적으로 결합

시키는가가 관건인 것이다. 정체성 자체의 슬로건화는 결국 차별의 정치학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정체성은 문화운동을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권위의 문제로 비추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고정된 범주보다는 비교정적 태도, 강박관념에서 벗어난 시대의 필요 조건, 행사의 유효함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정체성은 스스로 그것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착되는 것이지만 반강제적 획일화의 의도나 사고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고를 부분적이거나 실험해 볼 수 있었던 사례들로 중국의 상하이 비엔날레, 일본의 『후쿠오카 트리엔날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의 가능성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2000년 11월 자국 중심의 행사에서 국제 비엔날레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던 『상하이 비엔날레』의 경우, 20세기 초반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었던 지리적·역사적 맥락을 심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리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급변하는 중국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며 현대와 전통이 혼재된 가운데 '조화'를 추구하는 상하이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경우, '새로운 아시아'의 담론을 전개하는 '개방성'의 상징으로서 안정맞춤인 개최지의 지정학적 특성을 환기시키면서 그것을 중국의 전통과 현재적 리얼리티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이슈들과 묶어내는 시도를 통해 권력화, 보수화된 서구의 비엔날레의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자임했다. 특히 국제적인 미술의 흐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온 사이쿠오강, 황용핑 등의 해외파와 팡리준 등의 국내파 중국 작가들이 서구 작가들의 고민의 양상과는 축을 달리하는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면서 독자적인 현실문화적 발언을 전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제2회 후쿠오카 트리엔날레』가 '이야기하는 손, 이어주는 손: 상상 속에 그려보는 작업'이라는 주제를 통

해 손의 회복과 수공성을 이슈화한 것도 서구의 모더니즘적 가치와 하이테크놀로지 문명이 추구해 온 이미지, 정보 중심의 시각적 인식방식의 문제를 동양의 장인적·수공적 전통에 기반한 로우테크놀로지의 이슈로 중화시킴으로써 인간성의 회복과 자연회귀적 삶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자 한 주최측의 의지와 소산으로 읽혀진다. 물론 그러한 발상이 시대적 흐름의 역행이라는 자가당착적 제스처로 비춰질 위험성을 내포했다라도, 그것이 단순한復古적 문화양식으로의 회귀나 태도를 지향하지 않은 이상 아시아 각국 문화의 경험과 전통적·공동체적 삶의 재관찰을 통해, 토착민 고유의 삶의 가치와 집단 의식이라는 연대감의 강조가 과연 서구적 미학의 획일화된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실험한 가치 있는 제언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한 시도가 글로벌 환경 속의 동시대 현대인들의 현재적 삶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하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론적 고찰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긴 했지만 말이다.

그리고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역시 항구도시의 상징성이 닳을 내리고 거대한 통합의 물결을 표방하는 '메가웨이브'라는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일본과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삶의 조건들이 교차하는 크로스포인트 크로스로드의 발전기지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미 아시아 미술 중심의 『후쿠오카 트리엔날레』를 태동시킨 일본에서 본격적인 국제 비엔날레 규모의 『요코하마 트리엔날레』를 출범시킨 것은 일본 현대미술이 세계 미술계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졌다.

### 새로운 가치체계로서의 대안

이제 아시아 각국의 비엔날레들은 서구 열강의 식민지 잔재의 완전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적, 시·공



아시아 현대미술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차별화를 통한 '차이'의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 '지배'의 방식보다는 '만남'의 방식을 통한 '동거'의 가능성을 표방하는 전략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간의 맥락 속에서 새로운 선택권을 가진 주체임을 자임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의 문화적 패권주의의 포석을 두려는 또 하나의 중심으로서의 헤게모니 쟁탈에의 가세가 아니라 권력화된 서구의 비엔날레 정치학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가치체계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즉, 권력 생산의 연대구축을 모방하여 기존의 서구 비엔날레 시스템의 모순을 따라가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를 양산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현존하는 시스템을 초월하여 지역성과 보편성이라는 이중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 나가면서 전복을 통한 새로운 문화 지형도를 그려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대안으로서의 의지는 서구 중심의 비엔날레에서 상실된 가치와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하나의 '저항'으로서의 의지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물리적 파괴와 교란의 수단으로서의 저항이 아닌 대안의 형식을 개발해 내는 정신적 가치의 소산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 비엔날레의 게임의 논리를 비트는 방식과, 서구 비엔날레와 동일한 게임의 논리로 문화 게임을 시도하는 양날의 방식으로 동시에 유효할 수 있겠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성적 가치의 계승과는 궤를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여전히 아시아 현대미술의 지표로 점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타자'와 '차이'의 문제를 재인식하여 그 개념적 재정의의 시도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진정한 의미의 차별화를 통한 '차이'의 이슈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만이 진정한 의미의 '조화'를 통한 지역성과 보편성의 창조적 결합 모델에 대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절대적 타자'가 절대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한쪽의 일방적 '지배'의 방식보다는 '만남'의 방식을 통한 '동거'의 가능성을 표방하는 전략들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비엔날레를 방문하는 국제적 비평가나 큐레이터들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지역적 관습과 역사, 기호들을 접하게 될 때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각 커뮤니티 고유의 성격과 무관한 기준으로 현지 미술의 세계적 가치성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도 아시아 비엔날레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즉 서구 큐레이터들이 획일화된 외래적 관점을 적용하여 서구의 협소한 미학적 기준과 잣대로 아시아 현대미술을 평가하는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방식과 장치들이 아시아 비엔날레에서 개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 미술의 현 주소와 에너지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비엔날레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아시아에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모색한다는 일은 자신의 역사와 언어, 기억, 장소에 깊이 뿌리박은 아시아 고유의 정신적 근원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나, 동시에 출

생지라는 지역성을 초월하여 그 관점을 세계와 인간의 내적 성찰의 문제로 결부시키는 역동적 전환과 대안적 사유의 지평을 열어가는 개방적·창조적 결합 모델의 제시 여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세계화 시대에 미술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전 지구적 공통 화두에 대하여 세계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아시아 비엔날레의 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통합의 시각에 의한 새로운 아시아 담론

이렇듯 오늘날의 아시아인은 전통적 가치의 분열과 해체의 역사적·현실적 조건 속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문화적 질서에 대한 능동적 제안을 강요받고 있다. 주지하듯이 20세기까지의 고전적 제국주의의 종말 이후 아시아의 국가와 도시들은 여전히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의 영향권 아래 모순과 갈등의 모호함 속에서 독자적 가치기준을 설정해 가려는 자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술한 맥락에서 '아시아적 정체성' 혹은 '아시아성'을 새롭게 규명하여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주적 선택권을 가진 주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고 그러한 시도는 전 지구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질서 개편과 억압에 대항하려는 절박한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담론을 구축하는 태도와 방법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문제는 더욱 절실하고 유효한 과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지적인 시도는 이제 세계를 서구와 비서구 양자 사이의 헤게모니 속에서 인식하거나 중심과 주변의 변증법적 대결구도로 규정하는 배타적 이중구조의 문화정치적 태도로부터 한 걸음 비켜서는 시각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분법이 아닌 통합의 시각을 통해 문제의 틀을 새롭게 규명해 나가는 방식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